

손흥민의 위업 ... “PK 없이 EPL 17골”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현재 페널티킥(PK) 없이 EPL 무대에서 17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개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세계 최고의 왼쪽 공격수라는 극찬도 나왔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일본 매체 더월드는 전날 'PK 없이 EPL 17골의 충격, 손흥민은 사디오 마네(리버풀)·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를 넘는 최고의 왼쪽 윙일까' 제하의 기사에서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전 헤트트릭으로 올 시즌 리그 득점이 17골에 도달했다. 이는 20골을 기록 중인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EPL 득점 순위 2위 기록"이라고 조명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기록이 대단한 건 팀 내에서 PK를 전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반면 살라는 이번 시즌 20골 중 5골이 PK 득점이었다. PK 득점을 제외한 EPL 득점 순위에서는 손흥민이 EPL 1위인 것"이라고



▲ 손흥민, 사진=토트넘 핫스퍼 웹사이트

설명했다.

축구 전문 매체 더월드는 최근 프랑스 풋메르카토가 꼽은 이번 시즌 최고의 레프트윙 후보에 손흥민과 마네, 비니시우스 후보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이 세 명 중 누가 최고인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마네(13골)나 비니시우스(14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건 그만큼 손흥민이 훌륭하다는 것이다. 개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최고의 왼쪽 공격수는 손흥민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나 이제 아무 말 안 할래”

르브론 제임스가 앞으로 선수 이동 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3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는 구단의 선수 이동 문제에 항상 관여했다. 자기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의 영입을 주장하면 구단은 들어주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있을 때도 그랬고, LA 레이커스에서도 막후 조종을 했다. 감독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원했다. 사실상 단장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히트, 레이커스에서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다른 옵션도 있었으나 제임스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원했다. 이에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을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수비가 좋은 젊은 선수들을 모두 잃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레이커스는 우승은커녕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언론 매체들은 제임스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여론이 좋지 않자 그는 앞으로 선수 이동 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임스는 그러나 자신이 데려온 웨스트브룩을 여전히 두둔했다. 그는 "웨스트브룩에게서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한 가지는 그의 경쟁적인 정신이다"고 말했다.

한편, 프랭크 보겔 감독을 경질한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도 트레이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로 있는 살럿 호넛스와 인디애나 페이스스가 웨스트브룩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 스타 파워 입증 ... 마스터스 시청률 '굉충'

타이거 우즈의 스타 파워가 시청률로 재입증됐다. 타이거 우즈(미국)의 복귀 무대로 큰 주목을 받은 마스터스 골프 대회 중계방송 시청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tigerwoods.com

마스터스를 중계한 미국 CBS는 12일 올해 최종 라운드 시청자는 평균 1천17만3천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작년 대회보다 7%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라운드 승부가 결정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시청자는 1316만 명에 육박했다.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중계한 1라운드 시청자는 280만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보다 21% 상승한 것이다. 2라운드 시청자 역시 작년보다 31% 증가한 350만

명에 이르렀다.

자동차 사고로 오른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도 사고 후 1년 2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복귀한 우즈는 컷 통과에 성공해 72홀을 완주했다.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온전치 않은 다리 탓에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마스터스 3~4라운드를 6오버와 78타로 부진하게 마쳤다. 최종 성적은 13오버와 301타로 컷을 통과한 52명 가운데 47위였다.

이 대회의 우승은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6, 미국)가 2위 토리 매길로이(33, 북아일랜드)를 3타 차로 꺾고 차지했다.

우즈는 오는 7월 열리는 디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 의사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낳은 혁신적인 최첨단 무중력 압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원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도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 목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척추디스크 치료 30년 이상의 임상경험 최첨단 척추디스크 치료기가 함께 해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